

‘스바냐 3 장, ‘여호와와 그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

➤ 들어가기

- 1 장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4 대손인 스바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와 그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받는 것을 지적하시며,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와 그의 날에 예루살렘이 북서쪽 제 2 구역부터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 2 장을 시작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므로 즉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자고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죄도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가장 남쪽, 구스(에디오피아)부터 가장 북쪽 앗수르까지 여호와와 그의 날에 저들도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 이제 3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와와 그의 날에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 선포하게 하였고, 그 여호와와 그의 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날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1. 여호와와 그의 날에 임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8 절)

1) 하나님은 다시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마땅한 성임을 선포 하셨습니다!

▪ 1-2 절 주목!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의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 교훈도 받지 않음 + 의지도 없음 + 가까이 하지도 않음!
=> 곧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인간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저주받을 인생이 되는 것!

▪ 특별히 하나님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심!!

①. 3 절: 지도자들 = 부르짖는 사자들, 재판장들 =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이리들!

-> 부르짖는 사자 =>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의 재물을 취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

-> 저녁 이리들 => 선의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옳은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뇌물을 뜯어 내며 자기 배만 불리는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것!!

②. 4 절: 선지자들 =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 =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자들!

->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성전(교회)을

더럽히는 지도자들이 된 것을 지적!!

- ✓ 여기서 다시금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항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말씀의 모법을 보이는지로 결정됨을 깨닫게 됨!!
=> 우리도 한 가정의 지도자요, 자녀들 앞에선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사실을 깨닫고, 항상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2) 그럼 이처럼 타락한 유다와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셨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선언하는가?

- 5 절 주목!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저들에게 공의를 비추시며,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
-> 그러나 저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곧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범죄하였음!!

3)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들로 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들은 부지런히 악을 행하기 바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 우선 6 절 주목!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심을 선언!!

- 7 절 주목!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 곧 6 절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고, 오직 나만 경외하고 따르는 민족되길 바라셨는데, 저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 것!!
 - 특별히 여기서 '부지런히'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른 새벽부터'란 의미!!
=> 곧 눈 뜨자마자 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범죄하기에 바빴다는 것!!

4) 그럼 이처럼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 8 절 주목!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임할 날, 곧 ‘여호와와 의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
 - > 이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
 - > 따라서 이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길뿐!!
 - => 참고로 징계도 사랑임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심판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9-20 절)

1)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날이 올 것! (9-10 절)

▪ 9-10 절 주목!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흡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 여호와와 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섬기게 하심!
- 곧 수많은 우상의 이름들을 부르며 부정하게 살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되는 날이 임할 것!!

②.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올 것!!

-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장 남쪽 나라인 구스의 강 건너편부터! 곧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관련없던 이방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섬기는 자들이 나올 것!!

✓ 이 말씀은 1 차적으로 앗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2 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올 것을 예언하신 것!!

2) 회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 (11-13 절)

▪ 11 절 주목!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①.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은

여호와와 의 심판이 임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범죄한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 곧 심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두려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

=> 그런데 이런 은혜의 날, 자유의 날이 언제인가? =>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 이상 지난 날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음을 잊지 말자!!

②. 그럼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 하나님께서 유다(이스라엘)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셨기 때문!!

=>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

▪ 12-13 절 주목!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①. 여호와와 의탁할 백성들, 혹은 남겨질 백성들은 누구인가?

->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 ‘그들이 여호와와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

=> 참고로 마태복음 5 장 3 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②. 특별히 저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 악을 행치 않고, 정직하고 (거짓된 혀가 없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음!!

=> Why? & How?

a. 항상 여호와와 의탁하며 보호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기에!!

b.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3) 기쁨으로 부를 노래 (14-17 절)

▪ 14 절 =>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여호와와 의탁할 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찬송하자 선언!

▪ 왜 찬송하자고 할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15 절 주목!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기에!

②. 악한 원수들이 쫓겨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에!

=>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하신 죄사함의 은혜요, 믿는 자들과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닌가!! 따라서 14 절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되자!

▪ 16 절 주목!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없이 팔을 떨구지 말라 할 것이라고 예언!
=> 곧 두 손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하게 될 것이란 예언!!
-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7 절 주목!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우선 17 절은 스바냐서의 두 번째 핵심 구절!
 - 참고로 첫 번째 핵심구절은 1 장 14-16 절!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그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 아무튼 성도가 두려워 말고 두손 높이 들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선포할 이유는?
 - a.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 b. 그 분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시며 기뻐해 주시기에!!
- 4)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8-20 절)
 - ①. 치욕스러웠던 모든 짐을 벗겨 주실 것! (18 절)
 -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 ②. 원수들을 멸하시고, 고통 속에서 건지실 것! (19 절)
 -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 ③.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 (20 절)
 -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 ✓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백성들로 범죄하였을 때,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결코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온 세상에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을 보다 나은 믿음과 신앙의 훈련으로 삼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